

올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Pastor: Rev. Simon, Seungsoo Oh
편집: 본당 편집회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2025년 12월 28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골로새서 3,14)



성가정 그림: 심순화 카타리나 (출처: 2020 수원 주보)

심순화 카타리나 작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수원가톨릭미술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3년 ‘성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주제의 개인 성화전을 시작으로 교회의 성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수원 교구청에 소장된 ‘평화의 모후’ 작품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 체험에서 그려낸 다수의 작품이 수원 가톨릭 대학교를 비롯하여 교황청 대사관, 당고개 순교 성지 외 여러 성지와 다수의 성당, 그리고 국내외의 수도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 정원에 설치된 ‘평화의 모후’ 한국 성모 모자이크화의 원본을 그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골로새서 3,16)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회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회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요한 2,13-22)

13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

14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15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19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20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21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22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떠나,

23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당신 집에 대한 열정” (요한 2,17)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는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신앙생활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한 발은 담그고 다른 한 발은 빼놓고 나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AA2]
- “사흘안에 다시 세우겠다.” (요한 2,19)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에게 벌어지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느끼게 되었고, 나의 믿음 또한 굳건히 해야겠습니다. [AA2]
-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요한 2,22) 말씀으로 기도하며, 돌아보니 나는 아팠던 예전 일들을 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지만 분명 내 삶엔 좋았던 순간과 소중한 추억도 많았었는데도 말이지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AA2]
-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요한 2,16) 말씀으로 기도하며, 부정과 부패로 타락한 성전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전이 예배와 기도의 집이 되면 좋겠고 요즘 세대가 나아가는데 모든 면에서 정화되고, 내 자신의 마음도 정화가 되는 소중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CT]
-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안에 다시 세우겠다.” (요한 2,19)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많은 유혹속에서 나도 모르게 변해갑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흘안에 부활하신 기적을 믿고 체험하면서 굳건한 믿음 속에서 신앙 생활과 바른 의지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CT]
-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요한 2,16) 말씀으로 기도하며,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들 또한 각자의 방식으로 주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돌아봅니다. 비판하기 보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NV2]
- “표징” (요한 2,18) 주님을 깊이 알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표징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표징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습니다. 내가 깨어 있지 않아 보지 못했을 뿐, 주님은 늘 당신의 흔적을 조용히 남기고 계셨습니다. [NV2]
- “다시 세우겠다.” (요한 2,19) 말씀으로 기도하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안에서 주님의 강한 사랑의 힘과 참된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느낍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나도 누군가를 세워주는 힘이 되고 싶습니다. [NV2]
-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요한 2,21) 말씀으로 기도하며, 건강한 몸으로 일상을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시고, 아름답고 소중한 성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NV2]
- “되살아나신 뒤에야” “말씀을 믿게 되었다.” (요한 2,22) 말씀으로 기도하며, 부모님의 말씀이 뒤늦게 깨달아지듯이 주님의 말씀도 삶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깊이 이해가 됩니다. 내 자녀들도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더 품고 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NV2]
- “표징을 보여주실 수 있소.” (요한 2,18) 말씀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속에서 바라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사흘안에 지어지는 겉모습의 성전의 기적을 바란 것 같습니다. 이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인데 세속적인 기적만을 바라왔던 나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RC2]

- “**아버지의 집**” (요한 2,16) 아버지의 집인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나에게 성당은 어렸을 때부터 놀이터이자 피난처였습니다. 힘든 어린 시절에 나는 성당에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곳에서 음악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남자 친구도 만나고, 결혼도 했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성당은 놀이터이자 피난처입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피신할 수 있었던 교회는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힘들 때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피난처를 찾아 위로받고 휴식하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RC2]
- “**허물어라.**” (요한 2,19) 성경 구절에서 성전을 짓는 데 46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나는 5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내 안에서 나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나를 보호하고 어려울 때 도망갈 수 있는 성전을 지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나 자신을 모시고 사는’ 성전을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허물기만 하면 언제든지 새롭게 진짜 성전을 지어 주시겠다고 확신하면서 말씀하시지만 너무 오랜 시간동안 단단히 지어 놓아서 허물기가 쉽지 않습니다. [RC2]
- “**내가 사흘안에 다시 세우겠다.**” (요한 2,19) 전에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믿는 것은 자존심에 상하는 일이었고 내가 나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자신감과 확신에 차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자신감을 배우고도 싶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믿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이면에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RC2]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람이시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활 성가집 셀라 273번 “이렇게 좋은날”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Scan Me

273

이렇게 좋은 날

최택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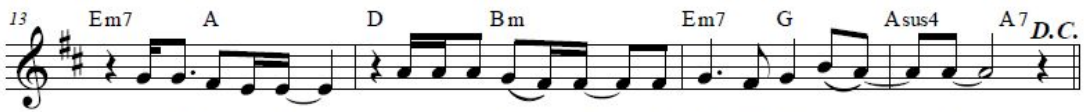
이렇게 좋 - 은 날 - 아름다운 -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 - 니다 -



하느님의 - 사랑 - 가득한 오 - 늘이 - 시간 - 우리의만 - 남을 - 기뻐 해 요 -



때론 슬 플 때 - 도 있 - 고 견디기 힘 든 때 도 있 - 겠 지 - 만 -



우리 하느님 - 당신과 함 - 께 - 늘 동 행 하 셔 - - 요 -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당 설정 50주년 기념 기도 봉헌 최종 집계

	미사봉헌	묵주기도 (단)	본당50주년 기념기도문	영적묵상 (시간)	화살기도	사제를 위한 기도	수도자를 위한 기도	선행
NOV 2025	797	3398	838	231	683	549	399	120
TOTAL	2270	40503	3033	710	3497	2675	2355	668



특별한 날, 50 주년 기념 음악회를 마치고

11월 어느 멋진 날, 본당 50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에서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교우분들의 모습과 성당의 분위기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음악 봉사자들은 회사나 학교에 입고 가기엔 한소리 들을 것 같은 옷을 갖춰 입고 조명과 마이크 앞에 서보고, 청중들은 늘 정숙을 지켜야 했던 대성전에서 응원봉을 흔들며 소리도 질러보고, (빨리 오신 분은) 수제 과배기도 맛보며 일상에서 벗어난 연말파티 같은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하루의 경험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활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공연 후에 적어도 1주일 동안은 음악회 때 들었던 노래를 흥얼 거렸을 것입니다. 사진과 영상도 돌려 보고요. 몇몇 분들은 공연 중 가장 강렬했던 순간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성당 주최 콘서트에서 엄마,아빠들을 위해 '아파트'를 신나게 불렀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이번에 '캔디'를 부른 아이들이 간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처럼 오래 기억되는 소중한 순간은 일상의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연 연습은 몇 개월이었지만 그 전부터 꾸준히 찬양 봉사를 하며 수년, 또는 수십 년을 갈고 닦아온 소리를 무대에 올렸던 것이죠. 평생 쌓아온 내공을 단 몇 분으로 압축하였기에 무대에서 더 빛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신앙과 이민 생활을 같이하는 분들과 나누었으니, 주님께서 보시고 참 좋았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음악봉사자들이 무대에 서기 위해 많은 분들의 도움과 기도가 있었다는 것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무거운 장비와 소품을 옮기던 벤야민회 진행팀,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한 여성부, 슬라이드와 포스터를 제작한 홍보부, 체크인 자리에서 응원도구와 프로그램을 나누어 주신 선교부 외에도 성당의 많은 단체들이 멋진 공연을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습시간동안 빈 자리를 이해해 준 배우자들과 자녀들까지 생각하면 음악회는 결코 혼자 만들어진게 아닌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이 그 희생까지도 포함된 공동체적 집중과 사랑의 결과물 입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그래서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콘서트에 있었던 모두가 모두에게 선물을 준 것 같아서요. 저도 빨간 벨벳 재킷을 다시 걸어두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때 받았던 에너지와 은총으로 더욱 즐겁게 음악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자신과 이웃에게 계속 응원 봉을 흔들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글 / 박주원 안드레아





2025 역사서 성경잔치

그냥 사무엘처럼 “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1사무 3,10)” 이 말씀이 새로운 제 삶의 말씀이 되어 앞으로 살아갈 날에 지침이 될 것입니다… “또 복을 받은 이들은 거룩한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미하라 (토빗 13, 18)”는 토빗에 있는 이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잊지 않고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새기고 기도하고 갈망합니다. — 글 | 권오숙 아네스

평소에는 봉사와 성당의 다른 모임에 참여해 왔는데 이번에는 성경 잔치에 무슨 일인지 골리게 되었습니다. 역사서를 찾아 읽고 유튜브도 찾아 공부하면서 평소에 성경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것과, 모든 일은 하느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편협한 생각을 반성하는 시간이었고, 이런 생각들을 고쳐야겠다고 다짐 하게한 시간이었습니다. — 글 | 김수진 사라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오 (2사무 6,22)” 이번에 성경을 읽으며 느낌이 달랐습니다.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죄-벌-회개-구원의 역사가 되풀이되듯이 저를 이렇게 한없이 기다려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글 | 김순복 프란치스카

성경의 묵상은 오늘 하느님이 이런 말씀과 깨달음을 주셨는데, 같은 구절을 내일 읽어보면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깨달음…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조금씩이지만 깊어지는, 알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깨달음이 내일이면, 또 다음날이면 달라질 것이므로 제 안에서 자라나도록 두고 싶습니다. — 글 | 김은희 요안나

성경잔치 참석 전에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제가 했던 숙제들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매번 숙제를 할때마다 느낌이 있었는데 9개의 숙제를 한꺼번에 읽으며 “아 나는 공동선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구나, 나는 주님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아주 크구나, 그런데도 나는 참 모자란 사람이구나, 주님 안에서 그 모자람을 잘 받아들이고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러한 소망들이 나를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매일 읽어야 하는 성경을 읽고, 들어야 하는 강의를 듣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었습니다. — 글 | 김혜림 크리스티나

역사서를 읽으며 하느님과 그 백성인 이스라엘의 7백 년 간의 신앙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저의 신앙은 기껏해야 몇십년 밖에 안되지만 우리도 하느님과 관계하는 삶,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이스라엘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임을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보는듯한 많은 이야기들과 그 안에서의 시행착오를 보며 보잘것 없는 나의 신앙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해답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 글 | 방성원 로사

판관기가 헛갈리는 이름과 통치 순서의 나열에 지루하고 의미를 모르겠다는 생각이는데 이번에 죄-벌-회개-구원의 연속적인 구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실수와 죄를 반복하는 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나 하느님과의 만남 속에서는 그것들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연스레 일어나는 일임을, 그래서 회개는 은총으로 다가오며 작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심을 아직은 얼떨떨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돌고 도는 구조속에서도 세미 마침표는 항상 구원 뒤에 찍어주시는 것 같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 글 | 배자현 마리아

토빗은 평생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고, 그의 아들 토비아에게도 “네가 가진 만큼,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과연 자선을 베푸는 생활을 해왔을까, 앞으로 나의 남은 삶동안 자선을 베풀 수 있을까? 토빗의 삶을 보면서 나의 삶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다짐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글 | 유기돈 유스티노

“두렵고 떨리는 자는 돌아가라… ‘개가 활듯이 물을 핥는 자를 모두 따로 세워라’... (판관기 7, 3-5)” 군사를 줄이라는 명령은 전략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기드온은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고, 그 믿음이 구원을 이끕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나 숫자에 의존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때때로 인간의 “힘”을 깎아내리고 그 약함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 글 | 진순미 보나

키가 작아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뵈는 자캐오의 심정으로 참석했습니다. — 글 | 김영목 프란체스코

구약은 현재의 삶이나 신앙과는 동떨어진지 오래되고,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읽어 나가기 힘든 그들만의 이야기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구약이 여러 이해집단에 의해 오랫동안 편집이 되었고, 인간적인 목적이 들어가면서 복잡하고 상충하는 이야기들이 포함되었으며, 유대 민족이 어려운 시련을 겪는 중에 어떻게든 하느님을 중심으로 민족의 생존과 통합의 길을 모색하려 했던 당시 리더들의 노력 흔적이 들어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나의 오늘의 신앙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 글 | 백종석 마카리오

역사서가 선별된 기록의 종합이라고는 해도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전해지는 이 책들이 성령의 인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보존되고 전달될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의 신앙 역사 속에서 그들의 흥망과 고난과 구원하심과 용서, 그리고 회복의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나의 인생과도 흡사함을 깨닫습니다. 실족하고 망하고 낙담하는 일상에서 뻔뻔하리만큼 놓치지 말아야 할 구원의 손을, 그 도움의 손길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붙잡고 찾아나가는 것만이 성장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 글 | 이수정 마리아

3년 반 전에 구약의 “하느님 사랑”인 “자애”가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궁금증과 호기심에 영어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하느님 사랑인 자애는 “케세드”의 우리말 번역인데 “인자하심”,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제 마음에 꽂혔던 것은 “Loyalty”로 번역되는 신의가 케세드와 동의어라는 것을 알게되었을 때였습니다. 충성과 신의가 하느님 사랑의 표현의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글 | 조규화 토마스

“나는 하느님께서 그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나의 명예를 떨어뜨려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자 하였다. (느헤미야 6,12-13)” 하느님의 뜻과 법을 얼마만큼 이해해야 다른 사람의 행동에 “신경쓰지말자”를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하느님께 집중할 때 다른사람에게 도움과 이익을 주고, 내 이익을 무시하는 결정을 할 때 두려움 없이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 글 | 조성민 대건안드레아

이번 여정에서 저는 구약시대의 영웅들뿐 아니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흥망성쇠를 때로는 흥미진진하게, 때로는 안타까워하며 읽었습니다.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인간의 모습과 세대를 초월해서 성실하게 구원 사업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지나가는 과정이겠지요. 이 과정에서 이왕이면 이번 성경 읽기에서 만났던 좋은 분들을 닮아 하느님의 일에 “협조”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 글 | 지연희 스텔라

성경 전체를 꼼꼼히 읽어본 적이 없이 매일 미사 책을 매일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는데... 몸이 아프면서 제가 죽어 하느님께서 “너는 나를 얼마나 알고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정말 하느님을 알고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공부를 하면서 유아 세례부터 충실했다고 믿은 제 교만함과 율법을 중시하던 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공동체의 중요성과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연대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느꼈습니다. — 글 | 최승원 엘리사벳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들었지만, 성경속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접하며 정말 감동하였습니다. 양치기로 자랐으며 예언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을 작은 돌맹이로 물리치고, 요나탄과의 우정을 끝까지 지키며, 부하들이 적진에서 구해온 물을 자신만 취할 수 없다며 하느님 대전에 뿌렸던 다윗. 후견인을 지명하지 않은 채 병석에 누운 다윗. 저는 “왜?” 어느 순간 “아! 하느님의 뜻을 기다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글 | 최희순 안나

